



주먹친尹 새정치민주연합 윤장현 광주시장 후보가 27일 오전 동구 금남공원에서 기초단체장·광역·기초의원 후보들과 함께 '광주 혁신선언'을 마친 뒤 주먹을 불끈 쥐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손잡은姜 무소속 후보 단일화를 이룬 강은태(오른쪽)·이용섭 무소속 광주시장 후보가 지지자들과 함께 27일 오전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찾아 헌화·묵념한 뒤 악수를 나누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국가 재난안전통신망 2017년까지 구축 완료

11년째 표류...무선통신망 통합

재난대응 관련 기관의 무선통신망을 하나로 통합하는 국가 재난안전통신망 구축사업이 11년째 표류한 끝에 내년부터 본격 시작된다.

정부는 27일 "세월호 참사 후속 조치로 박근혜 대통령이 약속한 '재난안전통신망 구축사업'을 조기 추진, 2017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난안전통신망 구축사업은 소방·경찰·해양·군·지방자치단체 등 재난대응 조직이 하나의 통신망 안에서 일사불란하게 재난에 대응하고 원활한 협조체계를 갖추기 위해 일원화된 무선통신망을 구축하는 것이다.

논란이 돼온 재난안전통신망 기술 방식은 미래창조과학부가 결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연말까지 정보화전략계획(ISP)을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내년 초 일부 지역에서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2016년에는 기존 무선통신망을 쓰고 있는 8개 시도에서 본사업을 시작하고, 2017년까지 서울·경기와 5대 광역시까지 확대하기로 일정을 잡았다. 서울·경기와 5대 광역시는 이미 소방·경찰 통합지휘통신망이 구축돼 있기 때문에 통합 재난안전통신망 사업 추진시기가 밀렸다.

미래부는 7월 말까지 재난안전통신망 기술방식 결정과 기술검증을 마칠 예정이다. 미래부는 재난망 구축에 필요한 37개 기능의 기술을 검증하고 필요한 주파수를 확보할 전담 태스크포스 구성, 운영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필요 예산을 확보, 재난안전통신망 구축사업을 뒷받침한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윤, 새정치 黨心 키우기... 강, 단일화 효과 키우기

선택 6·4 지방선거 D-7

무소속 강은태·이용섭 후보의 단일화에 맞서 새정치민주연합 측이 대대적인 반격을 시작하는 등 선거 막바지 새정치연합 윤장현 후보 대 무소속 강은태 후보의 본격적인 '제2라운드 선거전'이 시작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윤장현 후보는 27일 광주혁신선언과 공약을 제시하며 지지세 확대에 나섰다. 무소속 강은태 후보는 이용섭 후보와 '동행 선거 운동'에 나서는 등 '단일화 의지'를 재확인하며 비박 민심 잡기에 주력했다.

◇새정치연합 대대적 공세=새정치민주연합은 이날부터 윤 후보 측 선거캠프를 기존 시민캠프에서 당 조직이 참여하는 통합캠프로 전환하고 본격적인 반격을 시작했다. 윤 후보는 이날 광주 동구 금남로 금남공원에서 새정치연합 구청장과 시의원, 구의원 후보들과 함께 '광주혁신선언'을 하고 선거승리 다짐을 하는 등 본격적인 세물이에 나서며 '무소속 단일화 효과'를 희석시키는데 주력했다.

앞서 윤 후보는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윤장현의 100년, 광주를 위한 100가지

양강체제 재편... 광주시장 선거 2라운드 돌입

캠프 확대·중앙당 총지원에 무소속 연대 맞서

약속' 정책 발표회를 갖는 등 본격적으로 '정책 선거전'의 불을 붙였다.

광주시 인근 새정치민주연합 지지단체장 후보들도 윤 후보 지원 사격에 나섰다. 강인규 나주시장·구충곤 화순군수·최형식 담양군수·김양수 장성군수 후보가 참석한 가운데 '광주권 광역 생활공동체 상생 협약식'을 가졌다.

새정치민주연합 측은 또 선거 막바지까지 당 지도부를 광주에 대거 투입해 세물

이를 이어갈 계획이다.

29일에는 박지원 전 원내대표와 권노갑 상임고문 등 동교동계 출신 정치인들이 광주를 방문해 윤 후보 지원에 나서며, 박영선 원내대표와 추미애 의원 등도 이번주 중 광주를 방문할 예정이다.

새정치민주연합 광주시당과 윤 후보 측은 또 안철수 공동대표에 29일 광주 방문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안 대표가 이날 광주를 방문할 경우 2주 사이 3번째 방문이 된다.

◇무소속 단일 후보 '동행'=무소속 후보 단일화를 성사시킨 강은태 후보와 이용섭 후보는 이날부터 '동행 선거 운동'에 나섰다. 두 후보는 이날 오전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 5·18 민주묘지 참배를 시작으로 선거 운동에 돌입했다.

강 후보와 이 후보 측은 이날 단일화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양 측 캠프를 각각 통합한 '시민공천 단일후보 공동선거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 상임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이용섭 후보가 맡았고, 강 후보 측은 이 후보 선거캠프를 '시민공천 단일후보 선거 캠프'로 사용하기로 했다.

공동선거대책위는 28일부터 양 측 선거캠프에 몸 담았던 본부장급 이상 주요 간부

100여명이 참석하는 통합선대위 첫 회의를 열고 이날부터 강 후보와 이 상임선대위원장의 공동유세와 지원유세를 본격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다. 이 후보는 28일 후보직을 사퇴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6·4 지방선거에 출마한 광주지역 무소속 후보 30여명은 이날 강은태 광주시장 후보 지지 선언했다. 이들은 광주시 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차기 광주시정을 이끌어갈 시장으로 강은태 후보를 적극적으로 지지한다"면서 "새정치민주연합의 정치거래, '전략공천'의 구태를 심판하기 위해 시민이 참여하는 범시민대책본부 구성을 제안한다"고 강 후보 측에 요청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교육·사회·문화 총괄 부총리 신설

안전행정부→행정자치부로

세월호 대책, 정부조직개편

박근혜 대통령은 27일 세월호 참사 대책에 따른 정부조직 개편과 관련, "이번에 교육·사회·문화를 총괄하는 부총리를 두고 정책결정에 효율성과 책임성을 높이고자 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총리는 법질서와 공직사회 개혁, 사회안전, 비정상의 정상화 국정 아젠다를 전담해서 소신을 갖고 국정을 운영하도록 하고, 경제부총리는 경제 분야를, 교육·사회·문화부총리는 그 외의 분야를 책임지는 체제를 갖추고자 한다"며 "이 같은 내용도 정부조직법(안)에 담았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이로써 2기 박근혜 정부의 내각은 관피아(관료+마피아)를 비롯한 공직개혁을 진

두지워하고 국정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책임총리'를 정점으로 양날개에 경제 부총리와 비경제분야 부총리가 포진한 삼두체제로 전환된다.

다음주 국회에 제출하기로 한 정부조직개편안에 따르면 2기 박근혜 정부조직은 지난해 출범 당시의 17부3처17청에서 17부5처16청으로 몸집이 조금 커진다.

부처 규모는 동일하지만 교육부장관이 부총리를 겸직하도록 돼議員 올랐고 국가

안전처와 인사혁신처가 각각 장관급, 차관급으로 신설됨에 따라 정부의 외형이 커지게 됐다. 다만, 해양의 폐지로 차관급 해양경찰의 직제가 없어지고 안행부는 차관이 2명에서 1명으로 줄게 된다.

또 세월호 참사로 국가안전기능을 대폭 확충한 이번 개편안은 총리실 소속으로 각종 재난을 비롯한 국가안전 기능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국가안전처와 정부 인사업무를 총괄하는 인사혁신처를 두도록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개편안에 안전행정부의 안전과 인사 기능을 떼어내고 명칭도 변경, '행정자치부'로 바꾸는 내용을 담았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탑승 476명 구조 172명
실종 16명 사망 288명
※ 세월호 참사 42일째
27일 오후 8시 현재 ▶관련기사 7면

학교설립 60주년
기독교 명문대학
광신대학교
학부 605-1114, 대학원 605-1115

광주광역시정선거 새정치민주연합

시장을 바꿔야 광주가 바뀝니다!

누가 광주를 짓밟았습니까?
광주가 버림받았던 그 순간
그는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장관도 했고, 국회의원도 했고, 시장도 했고...
시민의 자존심을 참혹할 만큼 훼손하고도
아직 뭐가 부족합니까?

시민은 원합니다.
새인물 새정치를 원합니다.

박근혜 정부의 오만과 독선을 심판하고
2017년 정권을 교체할
새정치민주연합을 선택해 주십시오.

**광주시민과 윤장현이
대한민국의 새정치를 시작하겠습니다.**

광주를 바꾸는 첫 시민시장 **2** 윤장현

이 신문광고는 「공직선거법」 제69조의 규정에 따른 광고입니다.